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비밀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6852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4
8020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관한 지식.....	5
7100 이 땅의 삶은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가 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7
8566 창조의 과정과 존재들의 타락.....	9
7770 창조한 이유.....	11
8613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12
2494 물질과 영. 영적인 입자로서 영적인 존재와 한 영으로써 독립적인 영적인 존재.....	14
7098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해충들과 잡초들.....	15
7800 이 땅의 성장 과정.....	16
2775 육신을 입는 일. 총동. 이전의 단계.....	18
8235 사람은 진화가 된 것인가 또는 새로운 창조물인가?.....	19
6647 혼은 무엇인가?.....	21
7569 원래의 영의 자기 의식.....	23
2344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유지하는 혼.....	24
3661 혼의 성장을 위한 일들.....	24
7656 혼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25
1874a 혼의 불멸성.....	27
1874b 혼의 불멸성.....	27
0716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소형의 우주).....	28
4757 몸과 혼과 영. 이에 대한 설명.....	30
1618 혼. 사람 안의 영의 불씨.....	31
7698 양심의 소리.....	32
7837 자유의지.....	33
5557 이 땅의 과제는 의지를 정하는 일이다. 잘못된 추구.....	35
2489 의지와 행동. 책임.....	36
3901 선과 악. 영원한 법칙.....	36
6513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37
5594 헛된 것에 대한 진지한 경고와 권면.....	39
5705 진지한 경고. 물질에 대한 자세.....	40
4357 결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41
2795 후손을 얻으려는 의지. 기다리는 혼들.....	42
6100 사람이 정함 받은 일. 진리를 향한 갈망.....	43
9009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	44

7581 영적인 저조한 상태가 이 땅의 정화가 일어나게 한다.....	46
5961 하나님의 사랑의 묶음.....	47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B.D. No. 6852

1957년 6월 15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말씀은 내 사랑에서 발산되었고 이 말씀이 자신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와 연결되기 원하는 모든 피조물 사이를 연결시킨다. 왜냐면 내 음성을 들으려는 이런 소원과 의지가 말씀 자체에 있는 사랑의 힘에 의해 비로소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에게 말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존재에게 증명한다. 나로부터 존재들이 생명으로 창조되었을 때 말씀은 나로부터 나왔다. 나는 존재들에게 자신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형체를 가진 생각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어떤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임하는 것은 그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는 두 번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에게 증명한다.

창조 된 존재들이 비로소 말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자신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을 때에는 내 말씀이 울려 퍼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 된 존재들은 그들의 축복을 높이기 위해 내 음성을 들어야 했고 존재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존재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하고 존재는 내 생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그들 안에서 말씀으로 들렸고 존재 자신이 다시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았고 그의 생각하는 능력과 그의 의지가 자유롭게 일하도록 자극을 받았다.

존재는 자립적인 존재로써 내 밖으로 생성되었다. 그러나 말씀으로 표현되는 생각의 교류를 통해 나와 계속하여 연결 된 가운데 머물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의 형상인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존재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려는 열심이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알려주게 했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넘치게 사랑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말씀의 형태로 존재 안에 흘러갔고 존재들도 내 사랑에 나에게 응답했다. 왜냐면 그들이 내 사랑의 작품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다시 응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나로부터 먼저 생각이 말씀의 형태로 그들에게 흘러갔다. 왜냐면 말씀이 자체가 사랑이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하는 힘인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영원으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머물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하다. 말씀은 시작점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남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창조한 존재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이런 존재에게 말하고 말씀으로 존재를 행복하게 한다. 왜냐면 내 말씀의 형태로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내 사랑의 힘이 영원히 존재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말씀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내 피조물들에게 나를 증명한다. 내 피조물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결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표현 된다.

말씀이 모든 영원 가운데로 울려 퍼질 것이다. 왜냐면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항상 이런 사랑을 체험할 것이다. 나는 항상 내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고 나는 모든 무한 가운데 내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나는 단지 빛 가운데 있는 영의 존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적게 알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자유의지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이로써 내 도구로써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이 각인 된 내 말씀의 형태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감동을 줄지는 항상 내가 강제로 연기를 원하지 않는 선한 의지의 결과이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달을 것이다. 한번 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말하게 하는 사람은 또한 절대로 나타나는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을 내 사랑의 발산을 영접한다. 의식적으로 내가 그에게 말하게 하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영역에 머물고 내 사랑이 이제 중단없이 그에게 흘러 가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나와 긴밀하게 다시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항상 계속하여 내 말씀을 듣는 상태에 다시 도달하게 된다.

아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관한 지식.

B.D. No. 8020

1961년 10월 16일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항상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창조주의 기분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없이 먼 오래 전에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과정인 영적인 과정이 너희를 창조한 이유이다. 이 나라에서 내 사랑의 의지로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온전한 모두가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질서의 법칙이 무너지게 되었다. 온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반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들은 질서의 법칙을 벗어났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자유의지로 일어났다. 다시 말해 존재들의 의지가 기존의 질서에 대항해 거절했다. 그들이 깨달음은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 자신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영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로부터 떠나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 때 최고의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너희의 성품을 반대로 바꾼 존재들이다. 너희는 이런 타락했던 영들이다. 그러나 너희의 나로부터 타락과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사이에 영원에 영원의 끝 없이 긴 시간 간격이 있다.

이 사이는 즉 타락한 존재들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항상 내 인도함 가운데 서서히 깊고도 깊은 곳에서 다시 높은 것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기 각지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창조 된 어떤 것도 영원히 나로부터 떨어져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젠가 이 과정을 마치는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로 너희가 한때 잘못 된 방향을 향한 의지로 떠났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귀환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짧은 과정을 거치는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성장 단계에 도달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관찰해 본다면, 너희는 이 삶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의미가 큰 것인지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것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한번 진지하게 너희 자신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의 작품인 것을 제멋대로 생성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진지한 관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삶은 하나 목적을 섬겨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깨달은 창조주 권세와 너희를 연결시키려고 해야 한다. 이는 언제든지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가능하다. 나와 연결이 된 가운데 너희에게 곧 빛이 비추어 질 것이다.

너희에게 아주 작은 깨달음의 빛이 비추어 질 것이고 이 작은 빛이 언젠가는 전적인 빛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연결을 긴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너희 안에 빛이 항상 밝게 비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성취시킬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 가운데 너희의 성품을 원래 초기에 너희의 성품이었던 온전한 성품으로 바꾸는 변화를 이룰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사랑의 불씨를 지펴서 밝은 화염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너희가 다시 모든 온전한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린 성장의 과정을 내 원래의 성품을 다시 덧입음으로써 너의 자신을 다시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신적인 온전한 존재가 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삶을 살게 자극해야 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이다. 즉 끝 없이 긴 성장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전적으로 영화 된 존재로서 모든 온전함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들이 한때 생성되어 나왔던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이 과정은 올바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는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과정의 올바른 이유를 찾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주 분명하고 크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보고 실제 어렵고 고난이 충만하고 불쌍한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너희 안에서 항상 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삶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너희는 즉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운명이 같다면,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이 조화 가운데 염려가 없고 기쁨과 세상 행복으로 구성이 되고 이웃의 삶과 다른 점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실제 이 땅의 삶 자체의 외에는 다른 깊은 목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너희가 진지하게 이해 관해 생각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설명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깊은 이유를 구하려고 할 것이고 너희는 이 이유를 확실하게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너희가 단지 질문하는 일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단지 창조주의 기분대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된 것으로 만족 해버리면, 진실로 현명하다는 올바른 이성을 가졌다는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목적이 없는 것을 생성하기 위해 실제로 그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을 유지하는 일 외에는 전적으로 다른 목표가 없는 그러나 이 가운데 자신이 존재하는 기간을 정할 수 없는 피조물로 여김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삶은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가 또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자신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일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든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을 통해 너희가 영접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숨겨져 있는 깊은 깨달음에 관한 그러나 너희에게 숨겨져 있을 필요가 없는 지식에 관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됨을 확신할 수 있다.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헤아려보는 일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사람에게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진지함이 있으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이 땅의 삶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 사람 안에 항상 더 많은 질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목적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자신의 과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유일하게 이 땅의 삶을 돌보는 일만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모든 일어나는 일과 체험하는 일을 목적 때문인 것으로 깨달을 것이고 이제 그를 아주 만족시키는 영적인 자세를 찾고 이를 유지할 것이다. (195년 4월 23일)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의식적인 삶이 시작 된다. 왜냐면 그의 생각이 이제 비로소 그가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목표를 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비로소 스스로 혼에 대한 작업을 손대기 시작할 것이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을 지라도 이제 비로소 세상적인 목적은 뒤로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한 자세를 축복하고 새로운 측면을 그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의 생각이 새로운 측면을 분별해보고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

목적의 의식하는 이 땅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될 수 없고 영적인 성공을 해야만 한다. 반면에 단지 삶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는 스스로 실제 자신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할 것이고 그러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에게 사랑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위로 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은 그가 육신을 입기 시작한 단계의 상태로 머문다. 그러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전적으로 헛되게 살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신에게 최고의 성공을 줄 수 있는 큰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이 한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의 과정을 간다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저울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 스스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가 자연의 창조물 가운데 어느 정도 법적인 질서 안에 있는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그가 자신을 최고로 발달 된 창조물의 작품으로써 자신에게 이 질서를 적용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기롭다고 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진 아주 생각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삶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책임을 부인할지라도 그러나 자연의 창조물 가운데 자연의 법칙에 대항해 어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해 어기는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질서를 적용시켜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이런 질서의 법칙에 포함 된 것으로 느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생성시킨 분 앞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비 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자신이 순응하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그는 법을 세운 한 분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법을 세운 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느낄 것이다. 법을 세운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주님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느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권세 아래 있다.

왜냐면 이 세력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어떠한 성장도 줄 수 없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사라지게 함으로 다시

영원한 기간에 걸쳐 그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의 과정과 존재들의 타락.

B.D. No. 8566

1963년 7월 22일

내가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아주 기뻐하며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나로부터 단지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빛은 어두움을 비추인다. 그러나 너희가 빛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다시 비추어 줄 수 있을 때까지 너희에게 비추어 줘야만 하는 아직 빛이 없는 영역에 너희는 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없는 영역인 너희에 관한 설명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는 나로부터 온 빛의 비추임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비추어 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다시 서서히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지식을 줄 수 있다. 너희 안이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단지 나 자신만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창조한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너희는 나 자신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내 사랑의 힘이 나 자신으로부터 내 외부로 나와 상응하는 자립적인 존재인 피조물을 나 자신의 축소물로 창조했다.

나는 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나와 같이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로써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들은 나에게 신실하게 복종했고 넘치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한때 축복되었던 영들의 나라에 관해 너희 사람들은 적게 알거나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내가 내 형상을 통해 나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였을 때 이 나라를 창조했다.

내가 내 사랑을 부여할 수 있는 그릇을 창조한 것이다. 내 끝없는 사랑이 나 자신을 선물 해주기를 원한 것이 이 사랑이 그들의 온전함 가운데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흘러 들어 가기를 원한 것이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이유였다. 나는 기쁨을 위해 성품을 가진 존재인 거주자들을 가진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다. 나는 그들을 가장 놀라운 형태의 창조물들로 생명으로 불러 일으켰고 내가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부여주어서 존재들의 축복된 상태를 내가 기뻐했다. 내 근본 요소였고 내 근본 요소인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런 영의 세계는 조화 가운데 모든 존재가 그들의 창조주요 유지자인 나와 가장 긴밀하게 연합된 가운데 있었다.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런 존재들은 그들의 뜻과 그들의 사랑이 나와 똑 같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모든 온전함으로 나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해낸 존재가 깊은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했고 항상 내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불러 일으킨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며 제한이 없는 축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뜻이었다.

왜냐면 이 존재들이 나를 위하는 사랑은 같은 방향을 가진 의지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조화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내 의지에 대항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세상은 제한이 없는 축복된 세상이었다. 왜냐면 모든 성품을 가진 존재들이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할 수 있었다.

내 사랑의 힘이 모든 내 피조물에게 비추어지는 동안에는 이것이 내 의지였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상태는 지속되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내 의지로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각각의 존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표시로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런 자유의지를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다. 그럴지라도 루시퍼는 자유의지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그는 제한이 없는 축복된 존재였을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했고 이것을 반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너희 사람들의 이성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영적인 혁명을 가져왔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런 한때 일어났던 영적인 혁명의 산물이다.

내가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교류를 했던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말을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있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었고 전적으로 잘못 된 개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자신에게 속한 존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생각의 혼동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잘못 된 생각을 자신의 의지와 내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생성된 존재들에게 전해주었다. 나를 대적하는 반항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다. 존재들은 나에게 저항했다. 그들은 내 사랑의 빛의 능력을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이로써 연약하게 되고 빛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대항하며 거절했다. 그들의 생각은 자신의 길을 갔다.

믿을 수 없는 혼란이 원래 창조된 영들의 무리 가운데 일어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나로부터 타락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든 온전함으로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그럴지라도 항상 단지 내 작품이었던 창조된 존재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한 길을 보았다. 나로부터 타락한 후에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면 자유의지만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그러나 전적으로 나와 내 권세와 내 의지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전적으로 내 의지 안에서 행할 것이다. 왜냐면 존재들은 자신의 온전함을 통해 전적으로 내 의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 너희는 이런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선한 의지가 있으면, 너희에게 내 영원한 사랑의 빛이 다시 비추질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한때 소유했던 그러나 자유의지로 버렸던 이런 모든 깨달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보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큰 사랑을 알려주는 일보다 너희가 빛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되어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 상태처럼 되게 하는 일보다 이로써 너희가 다시 제한이 없는 축복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는 일보다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해 내 올바른 자녀로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향하고 영원히 향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한때 그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한 이유.

B.D. No. 7770

1960년 12월 12일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한때 영의 나라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결과이다. 너희의 창조의 왕관으로써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해야 함을 너희 스스로 세상적인 창조를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해 주었다. 너희 자신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세상적인 창조물들을 창조하게 했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창조의 작품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런 이 땅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원래 신적인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라는 증거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일이 너희의 신적인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다시 나에게 향하는 이로써 나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면 세상의 창조물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했고 그들은 영원한 내 계획대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을 나를 대적한 너희의 죄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너희는 창조물을 너희를 잃기를 원하지 않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내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창조를 가장 안전하게 너희를 다시 얻기 위한 수단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스스로 너희가 지나왔던 창조물을 거친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이 타락한 자들에게 베푼 은혜에 아주 넘치게 감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창조물은 더 이상 묶임이 아니게 되고 묶임일지라도 아주 큰 내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창조된 존재들에게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창조하게 만든 것처럼 사랑이 너희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내 뜻대로 활용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성장 정도가 필요

하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너희 혼은 너희를 한때 생성되게 한 빛과 능력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혼은 제한이 없이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내 곁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고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작품은 실제 한편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강요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로운 영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속되지 못한 영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다.

창조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심판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창조의 작품은 한편으로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유를 준다. 왜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일인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섬기는 일을 통해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 있는 구속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를 안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사랑으로 내 뜻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생성되게 하기 위해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 왜냐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내 구원계획을 깨닫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창조물을 내 대적자의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창조물은 자신 안에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자 자신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묶임을 받은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면에 빛의 세계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하고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항상 또 다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대적자의 영향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단지 올바르게 향하게 하면 된다. 그는 단지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하면 된다.

나는 그를 영접하고 진실로 그가 내 대적자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지의 시험은 그 자신이 치러야만 한다. 그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대적자로부터 그의 의지에 방향을 정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때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빛을 갈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성품을 증명해야만 한다.

아멘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B.D. No. 8613

1963년 9월 11일

내 모든 창조의 작품은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내 끝없는 사랑을 누구도 넘어서 수 없는 내 지혜와 내 전능함을 증명한다. 왜냐면 창조의 작품은 단지 유일하게 한때 타락했던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작품은 내 크고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다. 왜냐면 나에게 대적했던 그러므로 내 사랑을 거절했던 이로써 내 사랑에 합당하지 않게 된 영적인 존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이 들이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창조의 작품이 생성되게 했다. 즉 사랑은 저항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타락한 존재들을 포로로 했다. 다시 말해 내 지혜와 권세가 존재들은 셀 수 없이 많

은 입자로 분해를 해 내 사랑의 힘이 이들을 감싸고 한때 존재로 발출되어 나온 능력을 변화시켜 창조작품으로 형성시켰고 그들에게 내 지혜가 다시 그들의 사명을 부여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창조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했다. 즉 이 창조물은 진실로 신적인 내 존재 안의 나를 증거하는 너희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고 작품이다.

이 창조물은 기적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어떤 것도 생명이 없는 것이 없고 그들은 계속하여 변화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창조 작품의 기능들이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의 의지의 능력과 사랑이 끝이 없고 그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창조의 작품 안에서 의무의 법칙 아래 섬기는 일을 하는 각각의 입자들을 담고 있는 형체를 쉬지 않고 창조하는 하나님을 증명한다. 왜냐면 나는 이런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서 내 대적자의 권세를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그의 권세는 한때 그들을 타락하게 했고 그들이 자유의지로 따랐던 권세이다. 그들이 대적자를 자유의지로 따랐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속할지라도 내 사랑의 힘이 물질이 되게 한 그에게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 이런 존재들은 대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 났고 이제 내 법칙 아래에 서게 되었다. 존재들은 더 이상 자유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을 위해 내가 그들을 이제 그들이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섬겨야만 하는 내 법칙 아래 두었다.

모든 창조물은 타락한 불행한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창조물 안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역사이다. 그러나 한때 타락했던 존재가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는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된다. 그러면 그는 창조물을 제한되게 볼 수 있다. 그는 이를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면 고통스러운 상태를 뒤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앞의 모든 화려한 창조의 작품을 보게 된다. 그가 나를 대적하는 마지막 저항을 포기하기를 시작하면, 이런 작품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증거한다. 그러나 그 자신은 어느 면에서 볼 때 실제로 자유하다. 그럴지라도 전에는 그가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내 대적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항상 그의 일부분이다. 너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그러므로 창조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창조물은 내 작품이고 단지 내가 나로부터 존재로 발출 시킨 능력을 그들이 생성되는데 활용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단지 가장 다양한 내 사랑과 지혜의 작품으로 변형을 시킨 것이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의 입자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며 내 대적자에게 속한 것이며 너희가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의 일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물 안에 타락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 대신에 너희는 단지 내 사랑의 작품을 본다. 너희는 이 작품으로 인해 기뻐해도 된다. 너희는 나 자신을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 창조물을 거치는 길을 이미 마치고 온전함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너희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실제 세상이 단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의 겉모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물질이 굳어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다시 나를 대적한 내 사랑을 거절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의 세상의 입자가 나를 대적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그들의 원래 상태로 인도받을 수 있게 단지 내 사랑과 지혜가 섬기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가 나로부터 타락한 것이 영적인 입자가 굳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은 입자가 다시 영화가 될 때까지 내 대적자에게 속한다.

그렇지라도 내가 그에게서 이런 존재들에 대한 권세를 빼앗아 최종적으로 자유의지로 그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형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로써 창조물들도 항상 신적인 작품이며 단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거하고 있는 그의 사랑과 지혜가 원하고 성공할 것으로 깨달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나 자신만이 생성시킬 수 있는 내 끝없는 사랑과 지혜의 작품이다.

아멘

물질과 영. 영적인 입자로서 영적인 존재와 한 영으로써 독립적인 영적인 존재

B.D. No. 2494

1942년 10월 4일

□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의 물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성의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모든 볼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이다. 다시 말해 형태로 굳어진 성분들이다. 이 성분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적인 성분이었기 때문에, 압축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볼 수 있는 성분이 된 것이다. 영적인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생각한 특정한 형체를 생각해둔 대로 형체화 된 것이다.

이런 형체는 다시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연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각각의 입자들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분해될 수 있는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형체는 분해될 수 있다. 물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단지 높이 성장해야 할, 그러므로 영원히 이러한 형체 안에서 머물지 않는, 영적인 입자들의 형체이기 때문이다. 물질 자체도 영적인 입자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영적인 능력이지만, 그러나 항상 지속되는 분해와 부서지는 일을 통해, 다시 새로운 형체가 되면서, 끝없이 긴 기간 후에, 자신이 이런 형체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성장단계의 초기에 있는 영적인 힘이다. 반면에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는 형체 안에서 거할 수 있기 위해 볼 수 있는 형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형체 안에 어떠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연합이 되어, 능력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같은 입자와 연합이 되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입자들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입자들이 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분해된다면, 즉 한 형체가 파괴된다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입자들이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추구하여 새로운 살아 있는 형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

가운데 항상 지속되는 생성되고 다시 분해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이 자연 가운데 지속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영적인 입자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입자들 각각이, 어떤 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이 모여,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합당하게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체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진다. 이러한 영적인 입자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다. 그러나 물질 자체는 이러한 성장단계의 초기에 있는,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을 단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시작하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야만 한다. 볼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거하는 영적인 입자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파괴되는 일은, 즉 형체가 죽게 되거나 분해되는 일은, 즉 물질이 헛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물질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해충들과 잡초들.

B.D. No. 7098

1958년 4월 20일

 든 창조물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한 창조물의 올바른 목적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자주 왜 이것이나 또는 저것이 창조되었는지 질문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어떤 목적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언젠가 일을 행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 능력이 나타나는 효과에 있어 그들이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한가지 설명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떨어진 간격은 반항의 정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전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산인 영적인 존재는 비록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성장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단계에서 저항을 적게 줄인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성장 과정을 지속하고 새로운 형체를 입고 다시 말해 항상 서서히 일을 행하게 허용받는다. 그러나 이런 행하는 일이 영적인 존재의 저항에 합당하게 이뤄진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공개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섬긴다. 너희가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의 해충들을 모든 독충이나 또는 독이든 식물들을 생각하면, 너희가 바로 자연의 창조물들 가운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또는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체로써 그 안에 갇혀 있는 영적인 입자들에게 영화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창조물의 작품이 비록 너희가 이런 교류를 관찰해볼 수 없을지라도 다시 다른 창조물들이 유지되게 일부는 큰 생물체의 양분으로써 식물의 세계의 땅의 거름으로써 섬긴다.

그들은 다시 사람들이 이겨야 할 인내의 시험이던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생성한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인 자세이든 많은 시험이 요구되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다. 어떤 것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작품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세 대한 그의 믿음이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경외심을 갖게 해주는 일이 결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권세를 의심한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에게 원래 창조된 영들이 분해가 된 입자들에게 모든 물질적인 형체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받아 곁형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형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알게 해줄지라도 그러나 의무의 법칙 아래서 서서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것이 이미 너희 사람들이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 보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아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진실로 권한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면, 너희는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모든 의심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거부감을 비 호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연에게 정해진 바와 반대가 되게 지원해서는 안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증명할 수 있게 해를 끼치면, 너희는 이에 대항해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끝내야 한다. 이런 창조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살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너희가 그들이 사는 기간을 줄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적인 입자가 항상 새로운 형체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가졌던 저항이 줄어들면, 영적인 존재가 부드러워져 자원해 섬기고 그러므로 서서히 위로 성장해나가는 정도가 되면, 섬기는 역할을 하게 허용받는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도 다시 말해 너희 혼 안에 이런 과정을 가야만 하는 입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는 모든 것을 올바른 질서로 인도할 줄을 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목표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성장 과정.

B.D. No. 7800

1961년 1월 21일

이 땅이 창조 되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이 이 땅의 창조물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높은 곳을 향한 그들의 성장 과정을 간다. 왜냐하면 창조물들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안에 아직 꺾이지 않고 남아 있는 그러나 서로 다른 세기를 가진 저항에 알맞았기 때문이다. 창조물들은 크거나 적게 굳은 물질이다.

왜냐면 땅도 언젠가 사람이 거할 수 있게 성장 과정을 이미 거쳐 모든 입자들이 다 모여 자유의지와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서서히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이런 상태에 들어설 수 있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흐른다.

이 땅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물들을 생성 시키기 위해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이미 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단계가 마지막 성장 단계이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제 성장 과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언젠가 끝없는 과정을 돌아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상태인 그에게서 이런 기억을 빼앗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이제 인간으로써 완성해야 할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찰하면 그러면 그는 이 창조물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지에 관해 생각하게 되고 그의 심장 안에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에게 이런 지식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창조주의 성품을 알아보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주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원해야 한다. 이런 설명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그가 한 때 자유의지로 끊었던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이루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영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일은 영들의 타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귀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이뤄야만 한다. 그들의 이 땅의 과정의 목표는 성취 된다. 너희 사람들은 창조물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귀환하는 일의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런 귀환을 이룬 후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가장 작은 혼의 입자로서 창조 작품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빼앗지 않았으면,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너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의 소유였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깊은 곳까지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써 전적으로 능력과 빛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귀환하는 길을 가는 일은 불가능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창조를 한 모든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섬김을 통해 항상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귀환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해 있던 영적인 입자들이 다시 모여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가운데 인간으로써 마지막 형체를 입는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고 그러나 자유의지로 사랑으로 다시 섬겨야만 한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 모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은 모든 혼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영화되는 일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한때 지은 원죄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항상 또 다시 짓누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타락한 원래의 영인 사람은 만약에 그에게 확실한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타락한 존재들의 죄짐을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용서해주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 만약에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원래의 영들이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했던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한 그의 죄의 전적인 용서와 구속은 확실하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구속사역의 원인과 이유에 관한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너희가 항상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가 알아야만 하는 것에 관해 짧은 설명을 해주었다. 왜냐면 그가 모든 존재들을 창조할 때 세운 목표에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멘

육신을 입는 일. 총동. 이전의 단계.

B.D. No. 2775

1943년 6월 15일

혼의 모든 입자들이 혼 안으로 모이게 되면, 혼이 육신을 입는 일이 이뤄진다. 혼의 입자들은 가장 서로 다른 창조물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을 통해 높이 성장했다. 이제 육신을 입을 수 있기 위해 모든 각각의 창조물은 자신의 혼의 입자 안에 참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체는 혼의 걸 형체이고, 인간의 혼은 모든 창조물의 축소판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 이 전의 끝없이 긴 이 땅의 과정이 모든 이런 입자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육신을 입는 일을 기다린다. 이런 입자들은 혼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성장단계를 거치기 위해, 인간의 걸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는다.

이런 육신을 입는 기간이 비록 입자들이 이 전의 의무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였을지라도, 어느정도 자유를 가졌던 각각의 입자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럴지라도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단계에서 이미 더욱 더 자유스럽게 되었고, 특정한 총동을 줄이거나 또는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고, 이로써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성장정도에 도달했고, 이제 이런 성장정도가 다시 인간으로 마지막 육신을 입는 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모든 혼의 입자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있는 일을 추구한다. 왜냐면 입자들이 인간의 혼으로 하나로 뭉치면, 인간의 걸형체가 그들의 마지막 육신의 걸 형체임을 알고, 입자들이 모든 이 땅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은 이제 혼에게 육신을 입는 기회가 제공되는 곳에서 거한다. 사람의 성품이 혼 자신의 성장정도에 알맞은 곳에, 다시 말해 혼 자신의 고유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똑 같은 충동과 성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혼이 거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럴지라도 육신을 입는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 다른 성향을 가진 혼이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안으로 육신을 입기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면 혼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주 더 큰 어려움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혼의 성품의 특징이 고려되지 못하고, 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구에 올바르게 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이 이 전에 자신의 이 땅에 길을 알기 때문에, 혼 스스로가 결정하면, 혼은 저지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마지막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육신을 입는 동안, 혼에게 도움의 수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혼은 이 전의 가장 다양한 형체를 통해 모든 성품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단지 서로 다른 강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이런 성품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혼의 의지에 따라 강하게 되거나 또는 약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혼의 의지에 따라 마찬가지로 혼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나 혼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혼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성장정도와 같은 상태로 머문다. 그러면 혼이 육신을 입은 일을 통해 어떠한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혼의 곁 형체인 육신이 죽으면, 혼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극복해야 할 정욕과 충동을 통해 아직 물질적인 세계에 묶여 있다. 이로써 혼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저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혼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혼은 표현할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혼은 이 땅에서 가능성을 자신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죽은 후에 어떤 영적인 성공을 했는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아무리 높게 여겨도 지나치지 않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사람이 자신의 높은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합당하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선물이다. 왜냐면 그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는 더 이상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은 진화가 된 것인가 또는 새로운 창조물인가?

B.D. No. 8235

1962년 8월 9일

나를 섬기는 일을 하고 순수한 진리를 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너희에게 빛을 줘야 할 내 말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내용에는 내 영이 너희에게 전해준 영적인 내용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 스스로 설명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나는 더욱 이렇게 할 것이다. 창조물인 이 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 끝 없이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원래 영들이 분해가 된 가장 작은 입자들이 항상 높이 성장하게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다. 너희에게 이미 자주 알려준 것처럼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이 서서히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영적인 존재들은 의무단계 아래서 끝 없이 긴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과 정함 받은 바를 수행했다. 묶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전혀 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서히 성장해 나갔다. 성장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성장 정도에 알맞은 형체가 창조되었다.

광물, 식물, 동물의 세계에 끝 없이 많은 종류의 형체가 있고 모든 형체는 타락한 원래의 영들의 입자에 의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 입자들은 항상 더욱 모여서 결국에 가서는 크고 작은 생물체가 되었다. 형체를 떠난 이후에는 다시 모여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과 아주 유사한 형체가 된다.

이런 아주 긴 성장 과정에 내 법칙 아래 놓여 있다. 또는 내 의지 의해 창조된 창조물 안의 모든 과정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의 영들은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다시 돌려받고 성장 과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마지막 형체인 인간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무단계의 마지막 형체는 항상 사람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형체들은 아직 자신을 의식하는 단계가 아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의지를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고 이성과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책임의식이 없고 형체 안에 묶임을 받고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자연 법칙을 따라 모든 묶임을 받는 존재들에게 내 의지를 전달해 주는 돌보는 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능을 통해 행동을 취한다.

이제 성숙한 원래 영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지 또는 내 대적자에게 남기를 원할지 결정하는 자유의지의 시험해볼 수 있게 자유의지를 돌려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런 원래의 영들을 위해 나는 인간의 형체를 창조했다.

모든 창조의 작품은 특별히 항상 큰 형체를 가진 생물체들은 내 생각이 형체가 된 내 뜻에 의해 생성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생물체들은 가장 다양한 형체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형체들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계속 번식해 나가는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은 아주 다른 종들이 있다. 그러나 항상 같은 피조물로 남는다.

이제 처음으로 성숙하게 되어 원래의 영들에게 인간의 형체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내 뜻대로 창조 작품을 했다. 이 작품은 진실로 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기적과 같은 작품으로써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 내 뜻대로 내가 창조한 것이고 이미 창조되어 존재했던 것이 인간과 유사하게 진화가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인간의 형체는 한때 나를 떠났던, 내 형상이었고 이제 다시 내 형상이 되어 할 원래의 영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와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존재가 동물과 같은 존재로부터 서서히 진화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영이 처음으로 인간의 형체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런 특성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태어날 때에 항상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에게 속한 혼이 주어지게 되고 신적인 생기로써 혼이 생명을 유지한다.

인간은 이제 실제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번식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같은 피조물로 남게 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이제 항상 단지 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혼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초기에는 나에게 저항을 할 수 있지만 최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담의 혼이 육체를 소유하였을 때 내가 창조했던 인간의 육체는 똑 같이 남을 것이다. 이 땅 안에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죽은 또는 살아 있는 창조물들로 채워진 이 땅을 창조하는데 끝 없이 긴 기간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 원래의 영의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여서 나에게 귀환을 위한 마지막 과정을 시작할 때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 끝나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데는 내 새로운 창조의 작품인 자유의지를 가운데 마지막 시험을 치를 수 있기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형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특별한 내 창조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면 인간은 신적인 근원을 증명해주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만약에 그의 자유의지가 진지하게 마지막 완성을 추구를 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이성과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이 땅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혼은 무엇인가?

B.D. No. 6647

1956년 9월 17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비록 단지 희귀하게 인정을 받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전적으로 선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명한 답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영의 역사 결과들은 비록 이런 결과들이 유일하게 진리에 합당할지라도 의심을 받는다. 어떠한 종류의 질문이든 항상 유일하게 단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는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과 이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성은 마찬가지로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결과가 진리에 합당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진리라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단지 이성을 통해 얻은 여러가지 의견들과 관점들을 관철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진리 자체에서 나오는 빛을 주는 발산이다. 다시 말해 이성이 단지 영접하는 깨달음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전적으로 내적인 확신을 주고 특별하게 이성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빈틈없이 설명해준다.

이미 특정한 영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혼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혼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혼은 전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은 물질의 형체인 육체에게 비로소 생명을 부여하는 기운이다. 혼은 실제 생명이고 물질적인 겉형체 안에 거하는 볼 수 없는 그러나 능력이 이런 겉형체에 나타나는 동안에는 항상 존재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의 "나" 이다. 사람 안에 혼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혼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힘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 밖으로 어떠한 존재로 생성되게 나오게 해서 그에게 자립적인 생명을 부여한 존재이다. 이런 존재는 자유의지와 생각할 능력을 받았다. 이런 존재인 혼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는 일과 왜 거하는 지가 지식이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할 수 있는 원인이 혼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줘야 한다. 혼이 모든 신체의 각 기관들이 살아있게 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하고 육체의 모든 하는 일과 모든 의지의 자극과 모든 느낌이 육체 안에 거하는 혼이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혼은 실제 어떠한 영적인 것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을 볼 수 있으면, 전적으로 인간적인 겉 형체와 같이 보인다.

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는 일을 허용할 정도의 성장에 도달한 혼들은 이 혼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혼을 어떠한 물질적인 육체에 속한 입자로 설명할 수 없다. 혼은 영적인 입자이고 영적인 입자로 남는다. 그러므로 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발산이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켜야 한다. 혼은 손상될 수 없고 쇠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은 빛의 발산을 통해 다른 혼과 구별 된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혼이 언젠가 자신의 의지로 어둡게 만든 빛의 정도를 높이는 일이다.

단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사람도 혼의 특성을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혼은 어떤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각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온 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머물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혼이 사람의 실제적인 "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의 실제적인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사람의 실제적인 "나"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증명할 수 없고 혼은 육체의 기관들이 실제 그들의 역할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혼은 육체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혼이 없는 육체는 비록 모든 기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전적으로 생명이 없는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이 육체를 떠나면 생명이 없게 된다. 육체가 행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없어 지게 되고 육체의 기관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는 존재가 없어 지게 되고 자유의지로 생각하는 기관에 정하는 역사를 하는 존재가 없어 지게 되고, 사람 안의 모든 의지에 자극을 해주는 존재가 없어 지게 된다. 이런 생각하고 원하고 느끼는 어떤 존재가 혼이다. 혼은 이제 다른 영역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혼은 항상 이 전에 인간의 육체 안에서 거했던 존재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저세상에서 혼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혼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장 정도를 갖춰야만 한다.

아멘

 든 원래 영은 그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인간으로 깨달으면, 자신을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창조물 안에서 귀환의 과정을 위해 분해되었던 모든 혼의 입자들이 그 안에 모인다. 그러면 존재는 원래 초기에 창조된 영으로써 소유했고 버렸던 성장 정도를 이제 다시 빛의 존재로써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다시 얻어야만 하는 그의 성장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은 원래의 영이고 한때 타락했던 존재이고 내 끝없는 사랑이 창조한 작품이고 그가 단지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를 떠났고 그러나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무엇인지 무엇이 되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이런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 있게 되려면, 그 전에 그가 먼저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는 실제 자신을 인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정해진 일을 성취해야 할 영적인 존재로 깨닫는다. 그가 자신을 단지 이 땅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이 땅의 세상을 더 많이 향한다. 이는 대부분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 된다. 영적인 깨달음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나 영의 나라를 추구할 때 주어진다.

그러면 그에게 자신이 실제 정함받은 일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는 이제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주는 것에 자신을 드린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 이 지식을 영접하면, 그가 내가 피조물로 창조했고 내 자녀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하고 인간으로써 완성 직전 있는 원래의 영에 속한다는 생각과 확신이 그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다.

단지 사람의 의지가 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의지가 스스로 나에게 향한다.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의지가 이미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원래의 영은 이 땅의 인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사람이 전적으로 영화되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에는 실제 충분하다.

다시 말해 원래의 영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최고의 정도로 이르게 하는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되는 것이고 이제 내 가장 가까이에서 거할 수 있는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비추임이 보장되는 온전한 상태로 다시 된다. 다른 모든 원래의 영이 한번 빛의 나라에 들어서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올바른 의지의 결정을 먼저 했어야만 하고 항상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원래의 영들이 최고로 높은 빛의 충만함에 도달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이 복되기 위해 얼마나 끝 없이 긴 기간을 지나 왔는지 의식하면, 모든 원래의 영들은 넘치게 축복될 것이고 그들은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원에까지 나를 칭송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 내 뜻대로 창조하고 역사하는 내 자녀가 되고 자녀로 남을 것이다.

아멘

혼의 입자들은 그들의 구성이 아주 세심하여, 사람들이 혼을 본다면, 신비스럽고 우아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의 구성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고, 모든 창조물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끝없이 작은 형태로 혼 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입자들이 각각의 창조의 작품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입자들이 체험한 모든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즉 지속적인 연합으로 형태가 증가되고, 전체의 형상이 계속하여 바뀌고,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해하는 능력으로는 이런 모든 창조의 작품을 상상해보는 일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젠가 창조주의 지혜와 권세에 압도되어, 가장 기적적인 영광을 그에게 드러나게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작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창조의 작품 안에 다시 몇 천가지의 축소된 형태의 창조물들이 담겨 있고, 다시 하나님의 큰 창조의 작품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혼은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혼은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혼의 각각의 입자들은 창조물 안에서 그들의 과제를 이미 성취시켰고, 그러므로 마지막 가장 큰 과제를 위해 인간의 혼으로, 끝없이 긴 이 땅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 연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큰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의 혼처럼 넘치게 영광스럽게 구성된 기적의 작품은 없다.

혼이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다면, 이는 혼의 온전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나는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수천 가지의 형태와 구성으로 이뤄진 것을 바라본다면,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혼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의 작품을 보는 일이 혼에게 어떠한 혼을 압도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신을 관찰해보는 일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형상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상을 갖고, 항상 또 다시 우아하게 느끼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작품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므로 항상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일이 끝이 없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존재에게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존재의 영의 눈에 제공되는 것이 계속하여 변화돼야만 행복해지는 행복의 상태가 쉬지 않고 증가될 것이다.

아멘

혼의 성장을 위한 일들.

너희 안으로 들어가, 너희들의 연약한 점을 알아 내라.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바로 너희가 나의 질서 안에 거하려고, 즉 나의 뜻대로 살려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혼을 위한 작업이다.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모든 연약함,

모든 실수,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 자기 사랑에서 기인된다. 온유, 화평, 겸손, 인내, 긍휼과 공의는 이웃 사랑의 표시이다. 너희가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에 대해 열심히 작업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의 약점과 허물을 너희의 약점과 허물로 깨달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진실된 비판과 진실된 묵상으로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영접해야 하고, 너희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마음에 들고, 나 자신이 나의 자녀인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은 나의 임재를 막고 너희에게 해가 된다. 왜냐면 나와 나의 임재가 없이는 너희들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머물고, 이 땅의 너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요, 성품의 변화로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났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다. 왜냐면 원래의 상태만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래의 상태에서 멀리 있다면, 부족함과 무지와 무능력이 이 땅과 영의 나라의 너희 운명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복된 상태로 인도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여, 너희가 너희 성품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작업하게 하고, 너희가 아직 자기사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면의 관찰을 통해 얼마나 너희 생각과 행함이 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지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자기사랑에 머물러 있고, 이런 부족한 상태를 바꾸기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어디서든지 너희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항상 사랑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만으로 너희를 복되게 할 수 있고, 사랑만이 너희의 실수와 온전하지 못함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직 너희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의 이성을 활용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자신을 만들어라. 온유하고, 화평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며, 이웃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의 감정이 깨어날 것이고, 이 감정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가 더욱 사랑을 행하게 재촉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이성이 아니라 심장이 너희를 이끌고 높은 성장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안으로 들어가, 진지하게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질문하라. 그러면 너희의 심장이 너희에게 답변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진지하게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나 자신이 너희를 돕기 위해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진지하게 원하는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너희 혼에 대한 작업은 좋은 발전을 할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일이 너희의 의지라면, 너희 자신을 의지를 나의 의지아래 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너희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

아멘

혼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B.D. No. 7656

1960년 7월 26일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재물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아서 안 된다. 왜냐면 너희가 이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빠르게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

게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고 너희 심장을 물질에 연연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준다.

만약에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너희가 기울여야만 하는가? 재물이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됨을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재물을 버리게 됨을 내 뜻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재물을 잃게 됨을 너희는 얼마나 적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단지 세상에 속한 것에 헛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너희는 헛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너희는 단지 육체만을 돌보고 너희의 혼을 돌보지 않는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의 생명의 능력을 잘못 사용한다. 너희는 생명의 능력을 단지 너희 육체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영원 가운데 불행한 운명을 혼에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혼이 완성을 이루게 유일하게 돕는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혼을 굶주리게 한다. 반면에 너희는 육체로부터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면서 육체는 넘치게 돌본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오늘 내일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난하고 빈 상태로 저 세상으로 가고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 생명이 너희의 자신의 손에 놓여있지 않음을 이 땅의 너희 삶이 단지 짧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거부할 수 없게 매일 너희에게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죽음 후"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죽음의 순간에 소멸되지 않음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혼이 계속 산다는 것을 그러면 혼의 삶이 너희의 이 땅의 삶과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염려했던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너희가 생각 없이 매일 매일을 사는 원인이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생각하지 않는 원인이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을 세상적으로 이루면, 육체를 행복하게 하면, 미래를 위해 세상적인 재물을 많이 모으면 너희는 만족해한다. 너희는 도무지 아직 미래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모두가 한번은 죽어야만 함을 안다. 이런 지식이 너희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이 땅의 삶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부족한 믿음은 너희의 이 땅의 삶에 대해 언젠가 너희에게 책임을 요구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너희 모두는 이를 확신할 수 있다. 만약에 언젠가 너희가 가장 큰 영적인 부족함 가운데 저세상에 들어가게 되어 너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하지 않은 일을 깨달을 때 너희의 후회는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저세상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가능하고 가능했던 것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때가 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의 육신을 떠나야만 하고 이제 혼이 영의 나라로 가지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큰 기쁨과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큰 어두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항상 사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증명한대로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는 빛과 축복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어두움이 그를 맞아들이고 혼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 사랑의 지원을 받아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될 때까지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혼의 불멸성.

B.D. No. 1874a

1941년 4월 4일

마는 사람들이 혼이 죽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영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이고, 헛된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지속적인 것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어떠한 예외도 적용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 이 땅의 육신은 마찬가지로 사라질 지라도, 다시 말해, 육신이 겉으로 보기에 분해되어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이런 겉 보기의 사라짐이 단지 새롭게 형성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차례 생각을 해본 후에 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는 보잘것 없는 창조물도 어떠한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고, 즉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창조의 작품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다른 창조물이 첫번째의 창조작품의 나머지를 자신에게 받아들여, 즉 다른 창조물을 섬기면서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계속 산다. 그는 단지 외적인 변화를 진지하게 관찰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는 내적인 생명은 사라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최소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내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는 사람의 혼과 감정의 생명을 맘대로 끝낼 수 없음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이러한 감정의 생명이 모든 육신을 입는 일의 실제 목적임을 선명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인류가 이런 내적인 핵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겉 형체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멘

혼의 불멸성.

B.D. No. 1874b

1941년 4월 4일

사람의 존재는 항상 같은 구성원인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겉 형체인 육체는 혼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단지 기관이고, 이 기관을 통해 혼의 의지가 수행이 된다. 죽음의 순간에 혼은 이 땅에서처럼, 즉 볼 수 있는 창조의 작품 안에서 혼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혼이 거하는 장소를 바꾸어, 외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이다. 혼이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도록 혼을 양육해야 할 이 땅의 과정을 위한 단지 수단이었던 육체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사람의 존재의 세번째 구성원인 영은 실제 모든 사람 안에 잠자고 있지만, 혼의 의지가 육체보다 영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때, 다시 말해 항상 세상적인 욕구를 뒤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혼이 영이 혼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요구들을 덜 중요하게 여길 때,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한다. 육체와 혼과 영은 실제 함께 속해 있지만, 그렇더라도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혼이 자신의 의지를 육체의 요구에 더 많이 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육체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 안의 영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지의 방향이 저세상의 삶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삶 이후 혼이 거하는 상태를 정한다. 이 상태는 혼에게 행복이나 또는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혼이 거하는 이 땅의 삶과 육체의 기능은 단지 일시적인 단계이다. 혼은 이 땅에서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육체가 그의 기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된다면, 혼이 사라진 것으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혼은 실제 육체를 떠난다. 왜냐하면 혼이 자신의 걸 형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영역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혼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혼의 특성에 대한 전적으로 잘못된 관점이다. 왜냐하면 혼은 소멸될 수 없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실제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육체의 기관의 기능을 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혼은 자신의 부족한 성장정도로 인해, 다시 말해 혼이 자신 안의 영에게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행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절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혼은 영적인 것이고,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육체는 물질로, 세상적인 입자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지속적인 변형 아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원래의 구성요소로 분해된다.

아멘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소형의 우주)

B.D. No. 0716

1938년 12월 19일

저 세상의 친구들이 너의 갈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충만한 사랑으로 너에게 향하고 있다. 이제 받으라: 세상은 영적인 잠재력을 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높이 성장하게 하는 단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는 일은 단지 모든 종류의 저항에 부딪혀야만 하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이 이러한 저항을 충분하게 제공한다. 이 땅에서 또는 수많은 다른 행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체들에게 짐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써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 공급받는 능력을 통해 생명체 안에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써 계속되는 성장은 항상 생명체가 얼마나 자신 안에 거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생명체에게 주어진 일을 일찍 수행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영적인 지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계속되는 성장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어떠한 형체 안에서 생명체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질문이 가능하다.

이 질문에 대해 항상 단지 모든 형체를 거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혼의 입자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끝이 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모든 혼의 입자들이 존재하기까지 계속된다.

사람안에 세밀한 동요와 가장 섬세한 느낌들은 단지 모든 세밀함으로 구성된 혼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혼은 다시 가장 세밀한 혼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의 입자들이 이제 구성된 혼에게 가장 예민한 느낌과 감각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작은 창조의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의 섬세한 구성원이 없다면, 생성된 그리고 아직 생성되고 있는 기적의 작품을 향한 감각이 사람에게 없을 것이다. 그는 단지 그 자신 안에서 이미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창조물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작은 구성요소를 자신 안에 가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입자들이 자신의 혼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밖에 있는 입자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다시 작은 생명체는 어떤 종류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갖게 한다. 이 질문은 작은 생명체가 다시 더 작은 생명체들의 모든 입자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고, 그러므로 작은 생명체의 구성원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훨씬 더 성숙한 모든 것을 순전히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체 안에 입자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지배한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이러한 창조의 가르침 안의 중요한 깨달음의 지식을 통해 모든 다양한 사람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는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유익하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최고봉임을 깨달을 수 있고, 사람 자체가, 다시 말해 사람의 혼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예술작품이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만을 위해 이렇게 지혜로운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관찰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광물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원자로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의 작품이 가장 섬세하게 축소가 되어 사람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는 외부와 세상으로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 안의 저항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외부에서 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저항력을 갖도록 자극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환경도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서로 다른 혼의 입자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마찬가지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 단지 이를 통해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고, 혼이 빛나는 높은 진리에 접근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존재들이 가장 작은 생명체라 할지라도 모든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존재들을 담고 있는 사람도 똑같다.

이 일은 항상 먼저 그의 혼의 입자들을 영화 시키는 일이다. 혼의 입자들은 자신의 고유의 일을 하고, 아직 지독하게 반항을 하는 가운데 있고, 혼의 입자들이 전에 가졌던 형체 안에서 그들에게 한때 주어졌던 이 땅의 과제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을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많은 연약함과 실수와 덕스럽지 못한 점과 싸워야 할 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혼 안에 묶여 있는 입자들의 특성이 항상 또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의 걸형체인 육체에게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에 대항하여 가장 크게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떠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실제 영화가 되어 모든 위험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위해, 모든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만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은 실제 자주 자원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아멘

몸과 혼과 영. 이에 대한 설명.

B.D. No. 4757

1949년 10월 9일

사람들은 육체와 혼과 영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영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영은 육체와 반대이다. 반면에 혼은 둘 사이에서 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육체나 영을 결정해야만 하고, 절대로 양쪽으로 향할 수 없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초기의 혼은 몸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그러므로 혼은 단지 몸의 모든 소원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즉 인간의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것이 단지 몸의 요구를 따르고, 아직 물질인 몸과 연합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물질적 재물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은 영이 혼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영은 자신을 관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가 아직 우세하고, 육체가 혼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육체가 혼의 감각과 갈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혼은 또한 세상적인 것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수 있고, 육체의 욕망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혼은 이 땅의 삶에서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이 권리를 얻게 되고, 영이 이제 자신을 혼에게 표현하고, 혼이 영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혼은 다른 방향을 취하기 시작하고, 육체를 위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영적 재물을 위해 추구하게 된다. 혼은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다시 말해 혼은 영이 혼에게 전해주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실제 행복하게 느끼고 항상 더 적게 육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혼이 영이 혼에게 영적인 재물과 교환하기 위해 이 땅의 물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육체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시도한다. 영이 이제 육신을 이기고, 영과 육체가 혼을 자신들을 위해 얻으려고 한다. 영이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일에 성공하면, 영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은 사람 안의 신적인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징짓게 한다. 영은 사람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연결시키는 끈이다. 영은 사람이 자신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히 연결되는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깨닫는다. 그전에는 그는 단지 자신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생물체로 의식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깨닫는다면,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아니고, 그는 더 높은 재물을 구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영의 나라로 향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분과 접촉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이 올바르게 되고, 그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혼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한다. 이로써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사람 안의 영은 끊임없이 자신과 떨어질 수 없게 연합이 되었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되어 머물게 될 아버지의 영에게 다가가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아멘

혼. 사람 안의 영의 불씨.

B.D. No. 1618

1940년 9월 18일

사람의 혼은 셀 수 없이 많은 혼의 입자들이 모인 것이다. 혼의 입자는 영적인 능력이 모이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이런 모든 셀 수 없는 영의 입자들은 이 전에 어느 곳에선가 육신을 입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가 위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혼의 입자들과 연합이 되기 위해 한 형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은, 혼의 각각의 입자들이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쳤고, 동시에 혼은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을 정도로 성장했다.

혼은 항상 혼을 둘러싸고 있는 걸 형체와 같은 형체를 갖는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아주 매혹적이고, 다양한 그림을 보게 되 것이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그의 구성 뿐만 아니라, 그의 목적의 합당성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의 구성을 설명하는 일은 단지 사람의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떠한 셀 수 없게 많은 기적의 작품들이 인간의 육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혼으로 이해하는 혼은 모든 창조의 작품의 축소형이다. 혼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고, 이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영화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혼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다. 모든 성장 단계에 있는 혼의 근원적인 입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이제 사람 안에 육신을 입은 혼에게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넣어 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사람 안에 신적인 것을 넣어 주고, 혼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신적인 것을 택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것을 택하는 과제를 혼에게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인,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혼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의지가 있다면,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혼의 영화가 시작이 되고, 사람의 혼의 내면이 빛이 된다.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유혹하는 인간의 육체에 붙어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갈망에 혼이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다면, 혼이 육체가 육체로써 혼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저항한다면, 혼이 자신 안의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는 것에 자원하여 순복한다면,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혼이 한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다. 혼은 의식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자신 안의 영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 안에서 영적인 요소와 자신 외의 영적인 존재와 연합이 되기 위해, 사랑의 비추임과 능력을 영접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추구한다. 그럴지라도 육체의 요구가 지배적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가장 깊게 형체에 둘러싸인 가운데 사람 안에서 잠을 자고, 빛을 발산할 수 없고, 혼은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된다.

혼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가장 작은 영적인 성공도 하지 못하면서 산다. 혼 안의 영적인 존재는 사랑이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혼에게 이 땅의 과정은 높은 곳으로 성장을 위한 과정이 아니고, 정지하거나 또는 퇴보하는 과정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의 불씨는 주의를 받지 못하고 머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존재에게 흘러갈 수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혼이 이 땅에서 스스로 결정한 빛이 없는 상태를 혼은 영원으로 가지고 가고, 이 땅에서 활용하지 않은 시간을 끝없는 고통과 후회 가운데 생각하고, 혼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빛이 충만하게 바꾸기 위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아멘

양심의 소리.

B.D. No. 7698

1960년 9월 13일

너희는 온전하게 돼야만 하고 이를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는 한때 모든 능력을 버렸다. 이로써 너희는 연약하고 빛이 없는 피조물이 되었고 내 사랑이 너희를 붙잡고 너희가 다시 깊은 데서 올라오게 도울 때까지 깊은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직 가야만 할 길이 너희에게 있다.

이를 위해 너희는 내 능력과 내 인도가 필요하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연약함을 인식하면, 너희가 도움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면, 나는 너희 편에 서서 도울 준비가 되어있고 단지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탁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편에서는 너희의 의지에 전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항상 능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너희가 청한 도움에 항상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다.

너희 안에서 이런 요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 나는 한동안 너희의 연약함과 어둠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한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표시이다. 이를 통해 나는 너희를 나를 위해 얻으려 하고 그리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진다 너희는 단지 이를 영접하기만 되고 이에 대해 생각하면, 선한 의지가 있을 경우 이를 믿을 수 있다.

너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원하면, 그리고 너희를 항상 올바르게 인도하는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가 굳은 믿음을 갖게 돕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음성은 모든 사람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울린다. 그러나 이 소리는 들을 수 있고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양심의 소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깨닫게 한다. 사람은 양심을 통해 기본법칙과 사랑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

왜냐면 인간으로서 그는 정확하게 무엇이 그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지 무엇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이웃에게 행복감을 주게끔 행동할 수 있고 그의 신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로써 그 안에서 사랑이 일깨워지게 되고 이 사랑이 그에게 빛의 깨달음을 준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 세미한 감정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세미한 감정은 양심의 소리로 표현 된다. 그가 이에 주의할 때 그가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을 때 가지고 있던 강한 자기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변한다. 이럴 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대한 강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보장되고 그러면 그들은 내 안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며 나에게 이끌기 원하는 아버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이제 이 연결을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힘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완성에 도달하게 인도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도 연약함과 무지가운데 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거역하지 않고 그들의 의지가 양심의 소리에 영향을 받을 때 나는 그들의 전 인생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자로 남는다. 그의 혼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이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다. 그는 절대로 혼자 놔두지 않게 됨을 확신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

자유의지.

B.D. No. 7837

1961년 2월 28일

너희가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할지에 대한 질문에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지는 세상적인 질문이나 세상적인 계획에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혼이 너희 혼 위에 누구를 주인을 결정할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의해서도 어떠한 결정을 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항상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절대로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이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이 생각은 어떤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항상 생각과 말과 모든 종류의 일이 일어나 이를 통해 단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의지에)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적자 편에서 행한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스스로 어떠한 영향을 따를지 정한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그는 언젠가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했는지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의지의 시험을 위해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은 언젠가 자신의 의지의 결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웃에게는 또는 세상의 권세나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자신의 의지의 결정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지 또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할지는 가장 자유한 그의 의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단지 자신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는 하나님께 내적인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의 운명이 정하여 그가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원하는 것을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그들의 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행하는 일에 영적인 세력의 역사로 인해 다시 방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하는 것 자체는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비판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향하게 요구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항상 또 다시 이런 정보를 그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가 전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야만 하고 이로써 그가 결정하게 재촉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 스스로 싸워야 하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긍정적인 세력이나 부정적인 세력이 이런 싸움을 하고 그들 중 한 세력이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싸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이 싸움은 사람들의 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혼 자신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속하여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상을 받는 일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이 혼을 얻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부정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제 결정해야만 한다.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이 크기가 육체의 죽음 후의 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운명은 넘치게 축복 될 수 있고 그러나 넘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혼이 이 번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혼은 실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구속받는 일이 지연되게 한다. 그러나 의지는 언젠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하여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이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칠 수 있게 되기까지, 너희는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다. 너희 혼은 한때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로 분해가 되어, 모든 입자가 묶임을 받은 상태 가운데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고, 다시 모여 너희가 다시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다. 너희는 각각의 존재로서 자유롭게 너희가 속하기 원하는 주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하게 되었고, 이런 결정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고, 이러한 결정은 자유의지로 이뤄져야만 한다.

이 결정을 너희를 대신하여 해줄 수 없고, 이 결정은 미뤄질 수 없다. 너희는 이 땅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이 결정에 따라 영원 가운데 너희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과제에 대한 너희의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결정은 너희에게 빛과 축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또한 너희에게 죽음과 멸망을 줄 수 있다. 너희가 너희 의지를 통해 유일하게 결정을 한다. 비록 너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알려주었을지라도, 너희에게 영원 가운데 운명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는 열매가 총만한 것으로 소개해줬을지라도, 이로 인해 너희는 적게 감동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가 언젠간 너희 의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제로 이를 믿게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단지 적게 찾아 볼 수 있고, 아주 희귀하게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대로 올바른 주님을 택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나 불신의 효력이 나타나고,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과제를 잊고, 모든 생각이 그들이 짧은 시간 내에 떠나야만 하는 세상으로 향해 있다. 그들은 그들이 거쳐왔던 것을 향해 다시 얼굴을 돌린다. 물질의 과정을 거친 그들의 고난의 과정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서 지워진다. 왜냐면 그들이 의지의 자유로 그들의 결정을 해야만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주인을 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이 그들에게 좋지 않게 이뤄질 위험이 그들 가까이에 있고, 그들이 그들의 모든 감각을 물질로 향하게 하고, 이로써 이 세상의 주인을 자신의 주인으로 결정하는 위험이 그들 가까이에 있고, 이로써 그들이 이제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굳은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게 하는 자에 의해 희생될 위험 가까이에 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를 추구했어야 했고, 이 땅의 세상에 등을 돌렸어야 했다. 그러면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고, 모든 창조물을 거친 과정이 성공을 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이 존재에게 왕관을 쓰게 한 것이 된다. 그러면 혼이 올바른 주인을 찾고, 그를 향해 달려 가고, 사람은 이 땅의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고, 그는 무거운 이 땅의 육체를 벗고, 순수한 영으로써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길었던 이 땅의 과정이 헛되지 않게 되고, 존재는 다시 자신의 출처로 돌아가게 되고, 존재는 아버지를 깨닫고 모든 영원 가운데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

아멘

의지가 행동하게 만든다. 이로써 비록 행동이 비로소 의지를 확인해 주지만, 의지가 결정적이다. 의지가 없이는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의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의지는 선을 향한 사람의 생각과 또는 악을 향한 열심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의지를 실행해 옮길 수 있기 위해 사람에게 흘러가는 생명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부여하는 힘을 항상 사용할 것이다.

그가 이제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힘의 도움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행동은 악한 세력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일이고, 악한 세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악한 생각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세력에게 향한 것이다.

사람의 의지가 선하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는 그에게 흐르는 생명력을 항상 이웃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섬기는 이웃사랑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이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면, 사랑이 사람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도한다면,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그러므로 의지가 자유 가운데 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부터 나온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사랑하려는 의지에 합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멘

선과 악. 영원한 법칙.

B.D. No. 3901

1946년 10월 11일

악도 나의 허용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나의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악은 영원한 나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악은 나를 떠나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일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방향의 의지이고, 나에게 의해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 전적으로 반대 상태이다. 그러나 선이나, 악을 추구하는 일은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에게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온전하게 머물거나 또는 자유의지로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선과 악은 존재해야만 한다.

영원한 나의 법칙에 저항하는 모든 것은 악이다. 나의 영원한 질서 안에 머무는 모든 것은 선이다. 그러나 존재가 모든 방향으로 향하는 자신의 갈망을 자신 안에서 느끼거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 나의 뜻이다. 모든 정욕을 자신의 심장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은 나의 작품이다. 그러나 내가 존재들을 이렇게 창조한 이유는 나의 지혜와 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자유의지로 선을 추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저항이 존재해야

만 한다. 선하게 되기 위해 사람은 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선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선하게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온전함은 순전히 나의 사랑의 작품이 되었을 것이고, 되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를 위해 그 전에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허용할지라도 악은 절대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은 나의 신적인 질서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는 자유롭고, 자립적인, 스스로 원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단지 나의 의지의 능력의 산물이고, 절대로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랑의 능력을 비취줄 수 있는, 이로써 넘치게 축복해주기 원하는, 온전한 피조물을 만들기 원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신이 동인이 되어, 최고로 온전한 정도를 추구하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나의 의지는 선하고, 모든 영원까지 선하게 머문다. 나의 의지에 자유의지로 순복하는 사람은 선하고, 선하게 머물 것이다. 나의 뜻의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러나 악을 선호하고, 비록 그가 스스로 자신의 온전함을 빼앗을지라도, 나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가 가장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할지라도, 나의 가까이에 거하는 일을 허용하는 온전한 단계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기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는 거부할 수 없게 자유의지로 다시 높은 곳을 향해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바로 이 때문에 그의 의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선하다 할 수 없고, 절대로 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성되어 나온 모든 것들이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자유의지로 선한 것과 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까지, 자유의지로 나를 찾을 때까지, 이제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써, 영원히 축복된,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때까지 선과 악은 존재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B.D. No. 6513

1956년 3월 30일

내가 짊어진 인류의 죄는 말할 수 없게 무거웠다. 악한 행동은 그의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쳐야만 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만 했다면, 너희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한가지가 이미 아주 커서 너희는 이 죄를 묶여 있는 상태나 또는 인간의 상태에서 속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모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내가 감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간의 내 육체로 짊어졌고 내 육체가 아주 고통이 충만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의 죄를 속죄했다.

내 사랑이 너희들 돕게 했다. 모든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들과 나에게 신실하게 머문 모든 창조 된 원래의 존재들은 너희를 향한 같은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도 멸망을 받게 놔두지 않고 사랑은 어떤 것도 어둠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고 사랑이 큰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사랑 자체가 빛과 사랑이 충만한 존재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인간적인 형태로 일어나야만 했고 사랑이 인간의 겉형체를 입어야만 했다. 나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 안에서 거했다. 그럴지라도 인간 예수는 죄가 없이 순수했고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인간 예수가 너희 죄를 속죄했다. 인간 예수가 거대한 인류의 죄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갔다.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비 인간적인 고난을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는 이 고난의 모든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성품의 부족함이 이를 깨닫는 일을 막기 때문이다. 그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고난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내가 그 안에 거했던 내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혼은 떨고 요동했고 사랑을 통해 도달한 신성이 그에게 실제 힘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힘이 고난의 정도를 줄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 받기 원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가 내 대적자에 의해 깊은 곳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대적자로부터 혼들을 구매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죄가 있는 자녀를 아버지 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큰 죄짐이 속죄돼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기를 원했고 죄가 아주 컸기 때문에 희생제사도 특별하게 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주 큰 고통을 자신이 짊어 졌다. 그러므로 그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게 했고 그는 의식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갔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인류를 위한 이런 큰 공훈의 역사를 헤아려보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그가 전적으로 죄가 없었다는 것과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 충만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는 절대로 이런 역사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그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조용하게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 안의 신성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속죄가 없이는 죄를 용서해줄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너희는 언젠가 이 일의 모든 깊이로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가장 큰 공훈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인간이 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영역에 거했다. 그러므로 높은 곳의 빛의 나라로부터 내려온 그의 혼은 가장 깊은 어둠을 보고 지옥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끔찍하게 고


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혼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혼의 고통이 그의 고통을 천 배나 더 크게 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었다.

아멘

헛된 것에 대한 진지한 경고와 권면.

B.D. No. 5594

1953년 2월 3일

 든 것이 헛된 것임을 의식하라.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이 쇠하게 될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러면 단지 너희 자신이 이 땅에서 혼에게 대해준 상태로 너희의 혼이 남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라. 혼이 너희가 인간으로써 세상을 향해 가졌던 관점을, 즉 혼이 아직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처럼 물질에 연연해할지 또는 물질을 경시할지를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의식하라. 그러나 혼이 추구하고 추종하는 것이 단지 물질이었다면, 물질을 두고 와야만 하고 그러므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저 사상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통이 충만한 운명이 혼의 운명이 될 것이다. 반면에 혼에게 이 땅에 대한 어떠한 연연함이 없다면, 혼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추구한 일이 영을 향해 있었다면, 혼은 가볍고 자유롭고 축복되게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세상이 너희에게 단지 지속적이지 않은 그러나 너희가 재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를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겉보기의 재물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세상 재물에 대한 욕망이 사람의 혼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사람들의 이런 욕망이 아주 강하고,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지속적으로 더 커진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영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생각은 혼돈 가운데 있고, 그들은 단지 세상만을 위해 역사하고, 일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혼은 피해를져야만 하는 그들의 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착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지 그들의 혼이 죽음 이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쉬지 않고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항상 경고받고, 권면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강요 받을 수는 없다.

그들은 이러한 경고와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가오는 종말을 알려 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머문다. 왜냐면 그들이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동안 사람들 자신이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면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는 실제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는다. 이 계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 계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러므로 그들이 실제 높은 권세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권세를 부인한다. 그들이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은 눈을 단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향하고, 심장 안의 물질을 향한 갈망을 잠재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다시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혼은 계속하여 피폐하게 놔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그의 노력을 줄이지 않는다. 많은 일들이 종말의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파괴의 역사이고, 자연 재해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도록 창조물에게 명령하는 분을 깨닫게 하는 역사이다.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는 이 땅에서 또한 저 세상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을지라도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진지한 경고. 물질에 대한 자세.

B.D. No. 5705

1953년 6월 22일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관점을 세상으로 향하게 했고, 단지 세상 재물만을 추구한다. 너희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단지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에 거하고,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해 죽은 것처럼 침묵한다. 그러나 너희 육체는 단지 너희의 육신의 죽음 후에 남는 걸 형체에 불과하고, 너희 혼이 단지 짧은 기간 동안 거하는 장소이다. 이 땅의 삶을 통해 혼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물질적인 자세를 통해 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혼이 비참한 상태로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물질적인 세상은 파문 받은 영적인 존재들의 나라이다. 너희가 인간으로 실제 이런 나라의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의 너희의 마지막 단계의 장소이다. 너희 안에 세상의 영이 아주 강한 동안에는, 너희가 항상 단지 물질적인 재물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단지 이 땅의 세상을 위해 일하고 역사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물질의 노예이다. 그러나 너희는 물질의 지배자로서 물질을 극복해야 한다.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면,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대적자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을 위해 모든 생명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능력을 영적인 재물을 얻고, 영원을 위한 보물을 얻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언젠가 빼앗기게 되고, 영원한 곳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헛된 재물과 결별해야 한다.

너희는 생명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쇠하지 않고, 너희에게 부유함을 의미하고, 너희를 진실로 축복되게 해주는 재물을 얻어야 한다. 너희는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보다 더 귀하다. 왜냐면 물질적인 창조물들은 단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너희의 완성에 도달하는 일을 돕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물들의 가치를 잘못 깨닫고 있고, 너희는 세상을 너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방해가 되는 것으로 깨닫기 보다 세상을 추구한다. 물질이 너희를 섬기는 대신에 너희가 물질을 섬긴다. 너희는 물질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은 너희가 너희 안의 혼을 죽게 만드는 일이고, 혼이 영의 나라에 가게 되면, 혼이 굳은 걸 형체에 싸이게 되고, 빛이 걸 형체를 통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걸 형체가 분해될 때까지 혼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걸 형체가 더욱 더 굳어져 혼이 걸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더 이상 없게 되지 않는다면, 겉 형체가 분해되는 일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너희가 단지 항상 물질의 재물을 얻기를 추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 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헛됨을 깨닫고 쇠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지 말라. 왜냐면 이 땅의 삶은 단지 너희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성장하기 위해, 너희의 때가 되면, 겉 형체가 없이 육체를 벗어날 수 있기 위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혼이 성장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을 생각하고 너희 생각이 영을 향하게 하라. 왜냐면 모든 세상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혼은 계속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멘

결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B.D. No. 4357

1948년 6월 29일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만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 의해 축복되지 못한 결합이다. 혼은 깊은 내적 조화로 이루어진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삶이다. 결혼은 법을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이 사랑은 일단 한번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하면 결코 꺼트릴 수 없다. 왜냐면 진정한 사랑은 심장으로 연결되고, 감각의 쾌락을 좇는 육체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늘 상대방에게 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랑이야말로 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의 기초석이다.

결혼은 심장으로 서로 간에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두 사람의 내적으로 친밀한 교제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꿈꿀 수 없다. 두 사람이 내가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기를 구함으로 결혼이 성립된다. 그리하여 내 앞에 이 두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 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러한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떤 외적 곤경으로 부득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에게 속한 것으로 느낀다. 나의 축복이 그들 위에 머물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말미암은 가장 거룩한 감정이 결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결혼의 첫번째 조건이다.

(1948년 6월 29일) 그러나 이 땅에서 순전한 사랑은 보기 드물지만, 혼인을 통한 결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내 뜻과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인간 종족이 계속 번식해야 하고 무수히 많은 혼들이 물질세계에서 그들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가기 위해, 어떤 몸 안에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결합이 외적으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형식 안에, 어떠한 법 아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 형태가 돼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질서를 쉽게 깨고, 결과적으로 영적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후손들의 바른 양육에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적 형태를 따른 결혼은 내 뜻에 합당한 것이고, 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할지는 서로를 향한 부부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나의 축복에 결정적인 요소는 결혼이 사람 앞에서 혹은 내 앞에서 맺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한 결혼이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

이, 다른 동기로 맺어진 것이라면, 이는 실제 세상 앞에서 인정되는 결혼이다. 나는 그들이 구하면, 나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이 부부는 내가 의도한 사랑을 통해 축복된 일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연합의 상태가 아니다. 왜냐면 순수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려는 원칙이 항상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혼에 사랑 자체인 내가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다.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 내 앞에 나와, 나의 축복을 구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안에서 나의 영이 역사할 것이다.

아멘

후손을 얻으려는 의지. 기다리는 혼들.

B.D. No. 2795

1943년 7월 3일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육신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인류가 생성될 것이다.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마지막 성장과정 동안에 혼이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이 땅의 사람들의 자원하는 자세가 혼이 육신을 입을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육신을 입을 기회를 준다면, 이는 구속받지 못한 존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이다. 단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려는 의지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동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할 육체의 기능이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 영역에서 많은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는 자신의 원래의 과제를 위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결과는 많은 혼들이 헛되게 기다리게 하고, 비록 혼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단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혼들은 이제 이 땅 가까이에 거한다. 혼들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면, 대부분 이런 경우이다. 왜냐면 사랑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연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생명으로 깨어난 혼이 이 땅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에 도달하여, 빛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을 갖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는 연합은 혼에게 육신을 입을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육신 안에 악한 충동이 아주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특별하게 싸워야만 한다. (1943년 7월 3일) 후손을 나오려는 사람의 의지는 대부분 서로 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합에 사랑이 지배적이라면, 이제 육신을 입는 혼에게 큰 장점이 된다. 왜냐면 새로 태어난 존재에게 사랑의 불씨가 넘어가고, 이는 이제 현저하게 쉽게 이 땅에서 혼의 성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은 육신을 입으려는 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충동이 새로운 존재에게 같은 충동을 강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의 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항상 지속적으로 이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한다. 혼들이 육신을 입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럴지라도 사람들 가까이에 거하며 사람들에게 재촉을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아이를 낳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연합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항상 육체의 욕망이 더 크게 되는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면 혼들은 단지 그들의 특성에 맞게 사람들에게

게 역사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육신을 입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 순전히 육체적인 욕망을 전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충동에 의해 연합을 이루는 사람에게 큰 책임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육신을 입기 원하는 혼들로 둘러 쌓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으로 자신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혼들을 유혹하고, 혼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런 순간을 활용한다. 왜냐면 새롭게 잉태되는 존재 안에서 이제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혼들이 많다. 왜냐면 사랑으로, 의식적으로 후손을 태어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단지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항상 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 이 땅의 빛을 보게 된 사람들에게 단지 사랑이 적게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정함 받은 일. 진리를 향한 갈망.

B.D. No. 6100

1954년 11월 6일

사람이 정함 받은 일은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너희 사람들에게 목표로 주어졌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영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자유의지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하고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에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혹된 생각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감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혼의 저조한 성장단계만을 증명할 수 있고 성장 정도를 높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믿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피조물들과 창조주와의 연관관계를 믿지 않고 그들이 이 땅의 육신을 벗으면, 나중에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그들의 불신이 책임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대한 그들의 자세를 갖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의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통해 항상 지속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에 대해 단지 그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올바른 근거를 댈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진리를 체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원하는 일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왜냐면 진리를 향한 의지가 올바른 생각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진리를 갈망하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가 무관심하게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영접하면, 그에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다. 갈망이 있다면 그가 시험해보았을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면, 이는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절대로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없다.

사람에게 지식이 없다면, 그가 영적으로 눈이 먼 가운데 산다면, 이는 그 자신의 책임이다. 왜냐면 그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했고 또한 진리인지 자신이 절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가 실제 스스로 지식이 진리인지 시험해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가 이런 시험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고 단지 그의 이성으로는 이런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영을 밝게 해주기를 구하면, 그는 선명하게 깨닫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에 사람의 의지가 선하면, 심지어 이성도 이런 믿음에 동의한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이 지혜롭고 전능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창조주의 영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모든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갈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가능해야 하고 이런 사람에게 또한 곧 그들이 이 땅에서 정함받은 일에 대한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삶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경박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할 것이고 혼이 최고로 가능한 완성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사람들의 진정한 고향

B.D. No. 9009

1965년 7월 6일

내 말이 거짓으로 거절 받는다고 혼돈에 빠지지 말라. 단지 나 자신으로부터 순수한 진리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만약에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내용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줄 수 없다. 왜냐면 믿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는 증거가 없이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세상과 영의 나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나라로써 단지 믿음으로만 서로 연관관계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의 나라로부터 이성으로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는다면, 너희 사람들은 이것을 이 나라가 실재한다는 징표로서 고민할 것 없이 영접할 수 있다. 단지 나 자신만이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영의 나라를 부인하면, 이것은 그의 이성이 날카롭다는 표시가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이 이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영의 나라에 관한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단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의 이성이 대부분 이를 막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성의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의 불신으로 인해 경계선을 정한다. 이 불신이 그가 그의 생각이 이 땅의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막고 창조주께 직접 설명을 해주기를 구하는 일을 막는다.

그러나 그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그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믿는 사람들이 그와 연결이 되어 질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볼 수 있는 그에게는 실제의 세계를 의미하는 세상만으로 만족을 한다.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동시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문을 나에게 하고 내가 그에게 답변을 줄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단지 아주 적다. 왜냐면 이웃들부터 이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자연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여김 받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나라와 이런 연결을 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너희는 아느냐, 위로부터 받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너희는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 지식은 너희 인간들을 이 땅의 세상에서 영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고향이고 너희가 성숙하건 성숙하지 못한 건 너희 모두를 언젠가는 받아들일 것이다. 두 가지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나라에서 영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 자신이 너희와 대화를 하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은혜를 제공한다.

너희는 이 은혜를 거절한다. 왜냐면 너희의 이성이 반대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심장이 말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너희는 계속하여 사랑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왜냐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 심장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너희는 나에게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이성을 넘어서는 너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 단지 너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아는 자의 조용한 기쁨을 주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빛이고 선명하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역으로 자신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다는 특정한 상황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런 지식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언젠가는 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단지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언젠가는 너의 진정한 고향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따라 깊은 곳까지 동행한 나와 인간으로써 다시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할 수 있을 때까지 전에 너희가 엄청난 분량으로 소유했었던,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나와 다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마지막 고향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너희는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거의 능가할 수 없는 깊은 상태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지 세상을 향한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이 땅의 과제를 수행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육체를 안락하게 하는 것과 전적으로 삶을 즐기는 일 외에 다른 이 땅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리 된 생각을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하다. 단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산다. 그들은 사람이 단지 세상 삶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그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히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소수이다. 이웃들을 같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실제 정함받은 일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은 아주 희귀하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상태는 창조물이 분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고 피할 수 없게 세상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게 한다.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 불의가 행해지고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인 삶을 산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책임감이 없다. 그들은 믿음이 없이 자라고 있거나 또는 혼의 성장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단지 형식적인 믿음 안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오류 가운데 잘못 된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병든 원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사람들이 언젠가 그 앞에서 그들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이로써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데 이 성장 과정 지속되려면, 언젠가 다시 질서를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종말은 피할 수 없이 오기 때문이다. 종말 전에 아직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선을 향한 지극히 작은 의지라도 있는 모든 곳에서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세가 변화될 것으로 계산하는 일은 잘못된 계산이다. 이 땅에서 일어날 영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계산하는 일은 잘못된 계산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아주 많은 권세를 부여하고 대적자는 진실로 이 권세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적자가 하는 일이 언젠가 중단돼야만 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의 권세를 빼앗아야만 한다. 그의 때가 끝나야만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함

께 묶임을 받아 악한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적인 존재들을 담은 이 땅의 창조물들이 분해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일이 요구 된다.

반면에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하게 되어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할 수 있게 새 땅이 생성 된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런 일이 필요한 때인지 안다.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이 그들의 저조한 상태에 도달하는지 언제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변형이 필요한지 안다. 그는 영원한 계획대로 이 때를 지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묶음.

B.D. No. 5961

1954년 5월 19일

너희는 내 사랑의 포로가 되라. 전혀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내 사랑을 빼앗으려는 자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굳게 감싸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너희를 나에게 굳게 연결시키고 너희는 이런 묶임을 기쁨과 축복 속에 견딜 것이고 스스로 묶임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게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스스로 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나에게 순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내 안의 아버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아버지에게 다가갈 것이다.

내 사랑이 묶는 일은 너희에게 강요가 아니다. 비록 너희가 나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 없을 지라도, 너희는 전적으로 자유한 피조물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러므로 나와 역사하고 일하는 축복된 내 자녀이다. 왜냐면 나는 또한 너희의 의지에 반하여 내 사랑의 끈으로 너희를 휘감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묶게 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달려와 너희를 더 이상 놓지 않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 머물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기 원하고 너희가 나 자신을 사랑으로 깨닫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원래 초기부터 너희를 향해 있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제 나를 추구하기 위해 너희가 먼저 나를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내면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빛을 선물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와 하나가 되려는 소원이 없다. 왜냐면 나는 너희 눈 앞에 숨겨져 있어서 나로부터 나오고 너희 심장을 행복하게 하는 부드러운 빛을 너희 눈이 깨닫게 될 때까지, 너희가 나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부드러운 빛을 깨달으면, 너희는 너희의 심장의 문을 나에게 열고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내 가까이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나를 붙잡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너희를 포로로 잡는다. 너희는 행복하게 되고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다. 너희 자신이 내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된 피조물이 된다.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을 구하라. 너희가 내 임재를 구하면, 너희를 뒤따를 수 없는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를 향한 갈망이 너희를 이미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나 자신이 이제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 대적자가 도망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를 짓누르는 사슬을 벗어라. 너희는 자원하여 내 권세 아래 너희 자신

을 순복시켜라.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를 묶게 하고 이러한 포로가 된 가운데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제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